

## ‘0점·재시험’...교사노트북해킹커닝 고교 성적처리 본격 논의

광주교육청, 학교성적관리위 소집해 2차 논의 진행

오늘 3차 회의 통해 최종 결정...“학생 피해 최소화”

‘교사 노트북 해킹커닝 사건’과 관련해 광주 대동고등학교가 ‘0점’ ‘재시험’ 등 성적 처리를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섰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동고가 커닝을 한 학생 2명의 성적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성적관리위’는 지난주 1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논의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경찰 수사결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2차 논의를 진행했으며 교과별 담당교사의 의견 등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적관리위는 17일 3차 회의를 통해 커닝 학생 성적만 ‘0점’처리 또는 ‘재시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성적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는 성적입력이 완료됐다”며 “재시험이 결정될 경우 문제 출제 등의 과정이 필요해 최소 한달정도가 예상되는 만큼 학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아울러 “성적 처리가 결정되면 생활교육위원회가 소집돼 학생의 퇴학 여부도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대동고 학생 2명에 대해 업무방해·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밤 학

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교사 노트북 10여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됐으며 학생은 퇴학처분 됐다.

당시 학교는 기말고사의 경우 재시험 치렀으며 중간고사는 해당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호기자

## 민주당, ‘취임 100일’ 맞은 尹에 “뚜껑 열어보니 너무 준비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선 과정에서 걱정했지만, 막상 뚜껑 열고 보니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尹, 쇄신 필요하단 지적 있지만 쇄신 의지 안 보여”  
 “정파 달리해도 100일차엔 격려...그럴 수 없어 참담”

우 위원장은 “내놓은 정책들이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많다”며 “최근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높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봐도 쇄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 “쇄신을 하려면 정책도 잘 다듬어야 하고 정책을 집행할 인문, 인사 쇄신이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의 태도나 집권 세력들의 자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런 점을 잘 정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100일 이후 잘

갔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파를 달리해도 역대 정부 100일 차에는 격려 메시지가 줄어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 100일 차에는 차마 그럴 수 없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락을 면할 수준은커녕 무엇 하나 국민의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대급 무능이라 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 스스로 ‘국민의 집’을 지쳐하고 있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야당이 여당을 걱정하는 아이러니가 개탄스럽다”며 “출범 100일만에 빠른 속도로 국정 신뢰도가 무너졌다. 퍼펙트 스톱 경제 위기가 엄습하는 이때 국정 동력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외외환의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한다”며 “야당도 국민도 포기하긴 너무나도 이른 시간이다. 국민의 기다림을 배신으로 되갚는 배은망덕은 더 없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서둘러야지’

1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17일까지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 ‘100만명당 확진자’ 세계 1위 불명예... “치명률은 낮아”

1만6452명...216개국 중 최다  
 치명률, OECD 국가 중 최하위

지난주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7~13일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가 1만6452명으로, 자료가

집계된 216개국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마셜제도 1만4577명, 3위는 일본 1만 1581명이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9세 이하와 활동량이 많은 20·30대의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백 청장은 “하지만 코로나19 중증화율

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치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다른 어느 주요 국가보다 엄격성 지수가 낮다”며 “우리나라는 일상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